



## 미 증시, ISM 지표 부진, 기술주 강세 등으로 혼조세

### 미국 증시 리뷰

6 일(화) 미국 3 대 증시는 사상최고치 경신 부담 속 6 월 ISM 서비스업 PMI 부진 등이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장중 하방 압력을 확대시킴. 6 월 FOMC 의사록 경계심리도 지수 움직임을 제한했으나, 금리 하락, 미 국방부의 클라우드 사업 취소 등에 힘입어 기술주를 중심으로 장 중반 이후 반등에 나서면서 혼조세 마감(다우 -0.6%, S&P500 -0.2%, 나스닥 +0.2%). 업종별로는 부동산(+0.9%), 경기소비재(+0.8%), 유틸리티(+0.4%) 등이 강세, 에너지(-3.20%), 금융(-1.6%), 소재(-1.4%) 등이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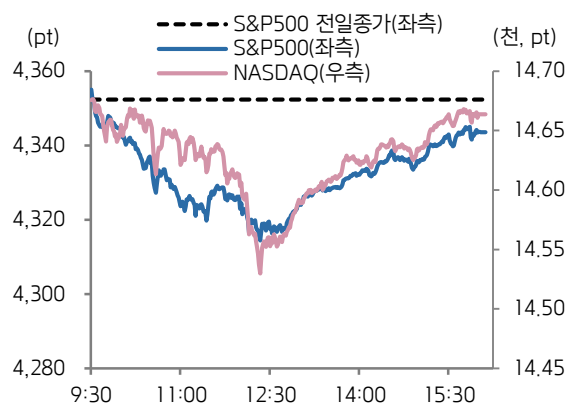
6 월 ISM 서비스업 PMI 는 60.1 로 전월(64.0) 및 예상치(63.3)를 모두 하회. 신규주문(63.9→62.1), 기업활동(66.2→60.4), 가격(80.6→79.5) 등 대부분 하위 항목들이 모두 둔화된 모습.

미 국방부는 산업 발전, 약 100 억달러 규모의 합동방어인프라사업(JEDI)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취소. 2019 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마이크로소프트(+0.0%)가 수주했던 해당 프로젝트가 취소됨에 따라,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아마존(+4.7%) 주가가 급등. 이 영향으로 클라우드 등 여타 기술주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나스닥 상승을 견인.

###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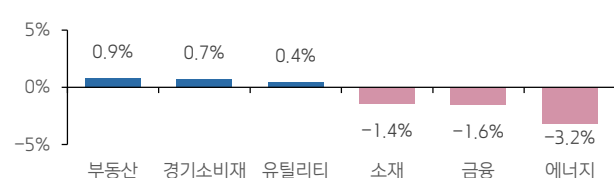
6 월 FOMC 이후 한동안 시장참여자들의 인플레이션 민감도가 낮아졌다는 점이 미국 증시 강세의 배경이었음. 그러나 서비스업 PMI 부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급 부족, 비용 상승 등이 인플레이션 부담이 미국 서비스업체들의 심리를 둔화시키고 있는 모습. 10 년물 금리가 약 20 일만에 1.3%대로 하락한 것도 (델타 변이 확산 영향도 있으나), 서비스 PMI 부진에 따른 미국 경기 고점 및 성장률 둔화 우려가 반영됐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물론 2 차 보복소비 여력, 인프라 투자 기대감 등을 감안 시 경기 모멘텀이 이른 시일 내에 피크아웃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계할 필요. 연준도 8월말 잭슨홀 미팅 전까지 6~7 월 인플레이션 추이를 확인할 것임을 감안 시, 추후 인플레이션 민감 장세가 재차 출현할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S&P500 일종 차트(7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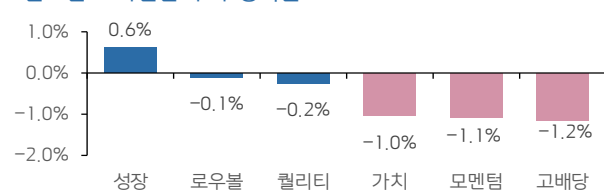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6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7월 6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7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4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7.5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에서 기인한 국내 경기 민감주 주가 변동성 경계 2. 미국 클라우드 업종 강세라는 훈풍이 국내 관련 업종으로 확산될지 여부 3.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

##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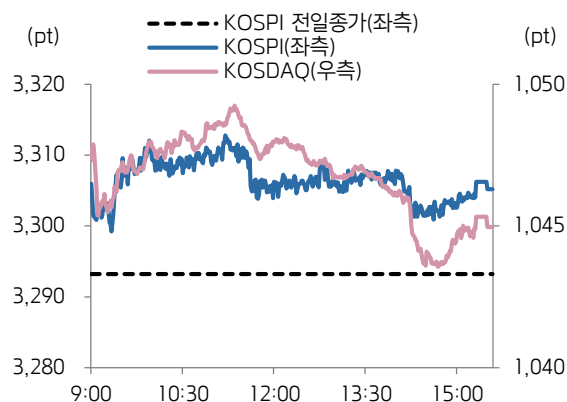
6 일(화) 코스피는 개별 약재성 재료에서 기인한 바이오주 주가 조정, 중소형주 차익실현 물량 출회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 2 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에 따른 삼성전자(+1.0%) 등 반도체 포함 IT 업종 주가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0.4%, 코스닥 -0.2%)

업종별로는 기계(+1.9%), 전기전자(+1.2%), 비금속광물(+0.9%) 등이 강세, 의약품(-3.0%), 운수창고(-0.4%), 철강금속(-0.4%)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92 억원, 2,237 억원 순매수, 개인이 2,920 억원 순매도를 기록

##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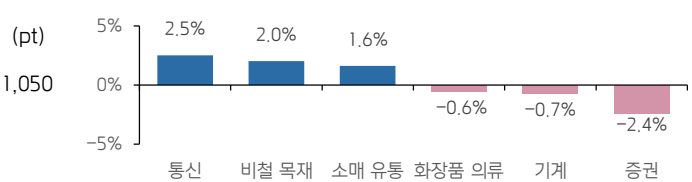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단기적인 레벨 부담 속 미국발 경기모멘텀 둔화, 6 월 FOMC 의사록 경계심리 등 대외 부담요인으로 금일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약 7 원 가까이 급등했음을 감안 시 외국인 수급도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 물론 장 개시전 발표예정인 삼성전자의 2 분기 실적(영업이익 컨센서스 10.9~11.0 조원)에 따라 장중 지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 2 분기에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라는 전망은 현재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이 된 것은 사실. 그러나 4~6 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 호조세를 감안 시, 통상적인 서프라이즈 이상으로 삼성전자의 2 분기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 이 경우 전반적인 2 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확대됨에 따라, 대외 약재성 재료들을 상쇄시켜줄 수 있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7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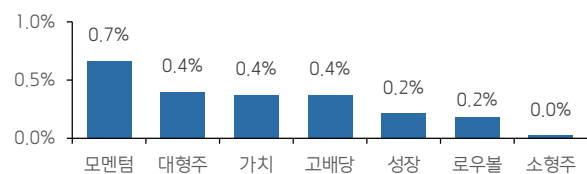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6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7월 6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중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